

유통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SSG닷컴 등 희망퇴직 시행

업계, 글로벌 경기침체 타격
임원 급여 삭감 등 대응 나서
“당분간 ‘몸집 줄이기’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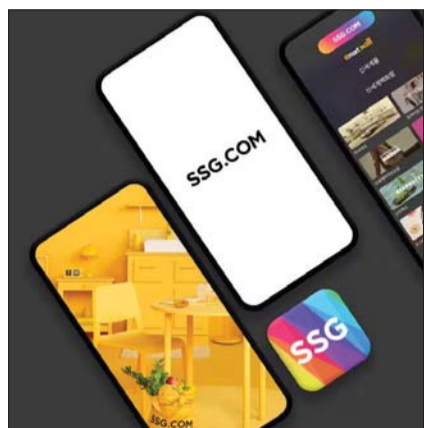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국내 유통업계가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e커머스 업계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나선 것. 일각에선 당분간 이같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SG도 첫 희망퇴직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이 지난 5일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최후학 SSG닷컴 대표는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5일부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SSG닷컴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마트에서 물적분할 때 법인이 설립한 이래 첫 희망퇴직이다. 신세계 그룹 이커머스 계열의 첫 희망퇴직이기도 하다.

희망퇴직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입사한 근속 기간 2년 이상의 본사 직원이며, 대상자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치



SSG닷컴 대표 이미지 /SSG

월급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업 중인 자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본인 희망 시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며 퇴직일자 31일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e커머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 개개인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의 희망퇴직은 지난달 SSG닷컴에 새로 취임한 최후학 대표의 첫 행보라 더욱 주목된다. 이에 업계에선 G

마켓도 희망퇴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SSG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유통업계도 이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지난달 롯데쇼핑의 온라인 사업 부문인 롯데온은 근속 3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11번가 역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3월까지 두 차례나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가 올해 1분기 말 1993년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해 업계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마트에 흡수합병된 이마트에브리데이도 비상경영을 강조하며 조직 효율화 및 쇠신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희망 퇴직은 면세점 업계로도 번졌다. 롯데면세점이 지난달 임원 급여 20% 삭감과 함께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등의 싸이커머스 기업의 공략에 국내 유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몸집줄이기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전국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尹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대응 등 글로벌 공조 도모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경고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를 도모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에 앞서 8~9일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 참배, 하와이 동포 만찬간담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한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올해는 나토 창설 75주년으로, 나토 측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속한 인

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으로 IP4(Indo-Pacific 4) 국가들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스톡홀름 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세 양자 회담을 한다.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

11일에는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서 글로벌 안보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

국제 금 가격 재상승... 2400달러 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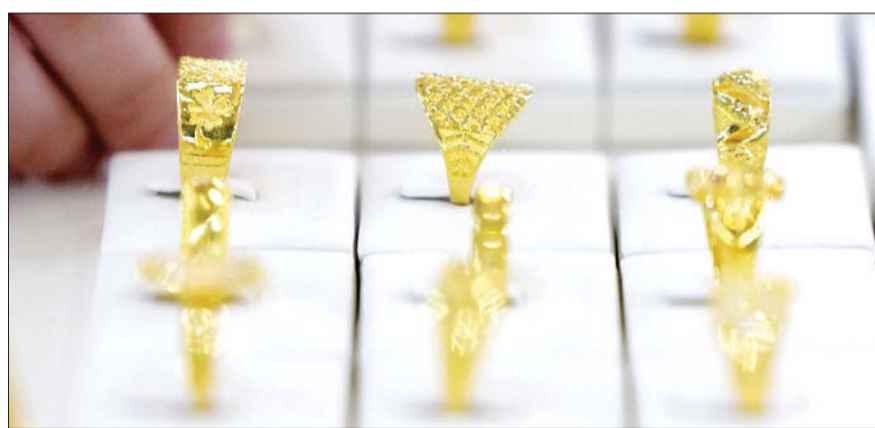
美 조기 금리인하 전망 확산
전문가들 “당분간 강세 이어갈 것”

최근 한 달 동안 온스 당 230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던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해 24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 미국 고용 시장이 냉각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스당 2397.7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28.30달러(1.19%) 오른 수준으로, 금 가격이 2400달러를 넘었던 5월 21일 이후 최고치다. 또한 금 가격은 직전 거래일(3일)에도 36달러(1.54%) 상승해,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미 노동부가 앞서 발표한 4~5월 고용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노동시장 냉각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초 온스당 2000달러 수준이었던 금 가격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2200달러를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 중인 금 제품. /뉴시스

돌파한 금 가격은 5월 20일에는 2438.5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6월 들어 미국의 고용률 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강달러 현상으로 금 가격은 2300달러대 초반에 가격대를 형성했고, 7월 초까지 안정적인 가격 변동을 보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6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20만 6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20만 건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은 16만 5000명에서 10만 8000명으로,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2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장에선 고용시장 냉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왔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7.7%로 전망했다. 일주일 전 전망치였던 64.2%에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금융 컨설팅 업체인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의 제이슨 쉐커 회장은 “달러 약세에 따라 금 가격이 상승했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금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등은 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혼자사는 중장년... 1인가구 67% '40대 이상'

비혼·이혼 증가 등 영향... 60대 최대

비혼과 이혼 건수, 독거노인 등의 증가에 따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40세 이상이 국내 전체 1인 가구의 2/3를 차지했다.

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1007만 개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해 177만 개 증가했다. 2019년 시작된 총인구 감소와 상반되는 흐름이다.

1인 가구 세대주 1007만 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8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69만 명)와

50대(164만 명)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40대, 70대도 각각 100만 명이상이었다. 특히,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시 40세 이상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 수가 68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체 1인 가구의 67.5%로, 2/3를 넘는다. 이 중 80대와 90대도 각각 75만 명, 12만 명을 기록했다.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 속 독거노인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6만 명으로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01만 명), 부산(65만 명), 경남(63만 명), 경북(59만 명), 인천(52만 명) 순으로 많았다. 세종이 5만 6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일부 대학, 정원 2~3배 추가합격자로 채워

» 1면 ‘서울대 제외 38개...’서 계속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장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교육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수준까지 거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대 합격선 하향추세에 더해 60% 이상의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의대교육

의 결과물 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정부가) 먼저 밝혀야 한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평원을 압박해 부당한 의대 증원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ihj@